

여름 이적시장 막바지...광주 “센터백·윙백 찾아요”

추가 선수 등록 마감 15일
이정호 감독 선수 테스트중
“승격 위해 전력 보강 필요”

여름 이적시장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FC가 포지션 보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를 영입하고 수비수 한희훈을 부산으로 보낸 광주는 선수 추가등록 기간 동안 센터백과 윙백 영입을 추진중이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팀이 더욱 탄력 받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며 “센터백, 윙백을 영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입 상황이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 체제로 시즌을 시작

하며 전력을 정비했다. 베테랑 수비수 안영규와 함께 문상윤과 김경민, 박한빈, 하승운, 아론 등 알짜배기 자원을 영입하면서 스쿼드의 질을 높였다. 동시에 헤이스와 함께 호흡을 맞춘 브라질 세리에A 출신 마이키 영입에 성공, 공격진에 날카로움을 더했다.

2022시즌 K리그2 선두를 달리며 1년만에 1부리그로의 승격을 노리는 광주는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자마자 공격진을 보강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산드로다.

186cm·82kg의 강력한 신체조건을 지닌 산드로는 동료들 활용한 연계 플레이는 물론, 날카로운 결정력이 장점인 최정방 공격수다. 또 투지와 패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 최적화된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K리그로 이적하기전 터키 리그에서 주전공격수로 활약하며 31경기 13득점 6도움을 기록했다.

광주에 합류한 뒤 공격포인트는 아직 없

으나 날카로운 공격력을 과시하며 상대 문전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2022시즌 선수 추가 등록 기간은 15일까지다. 이정호 감독은 국내 선수 자원을 찾고 있다. 10일 현재 광주는 승점 50점으로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아직 승점 20점 이상이 필요하다. 다른 구단에서 광주를 집중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엔 전력 업그레이드는 필수다.

이 감독은 “보강과 관련해 계속 구단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외국인 선수는 이미 4명이 있어서 국내선수 자원을 찾고 있다. 어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 이름을 직접 밝히기 어렵다. 눈여겨 보는 선수가 있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안 되면 기존 선수들과 그대로 갈 것”이



광주FC 이정호 감독

/광주FC 제공

라고 말했다.

한편, 올 여름 이적시장은 강원 발사, 성남 밀로스 등 몬테네그로 출신 공격수 영입이 눈에 띈다. 최근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인천 무고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K

리그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한 수원, 성남이 빠르게 선수보강에 나섰고 K리그2에서는 박진섭 감독 부임후 반등에 노력중인 부산이 5명 영입으로 가장 활발하다.

/조혜원 기자

조코비치 Wimble던 테니스 28연승

남자 단식 4연패 달성

노바크 조코비치(3위·세르비아)가 Wimble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4,035만 파운드·약 642억3,000만원) 남자 단식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조코비치는 10일(현지시간) 영국 Wimble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니키 키리코스(40위·호주)에게 3-1(4-6 6-3 6-4 7-6(7-3))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2018년과 2019년, 2021년에 이어 Wimble던 남자 단식 4연패를 이룩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Wimble던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은 2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31억2,000만원에 이른다.

Wimble던 남자 단식 4연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연속 정상에 오른 로저 페더러(스위스) 이후 16년 만에 나온 대기적이다.

조코비치는 2018년부터 Wimble던 단식 28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또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1번째 우승을 차지, 이 부문 단독 2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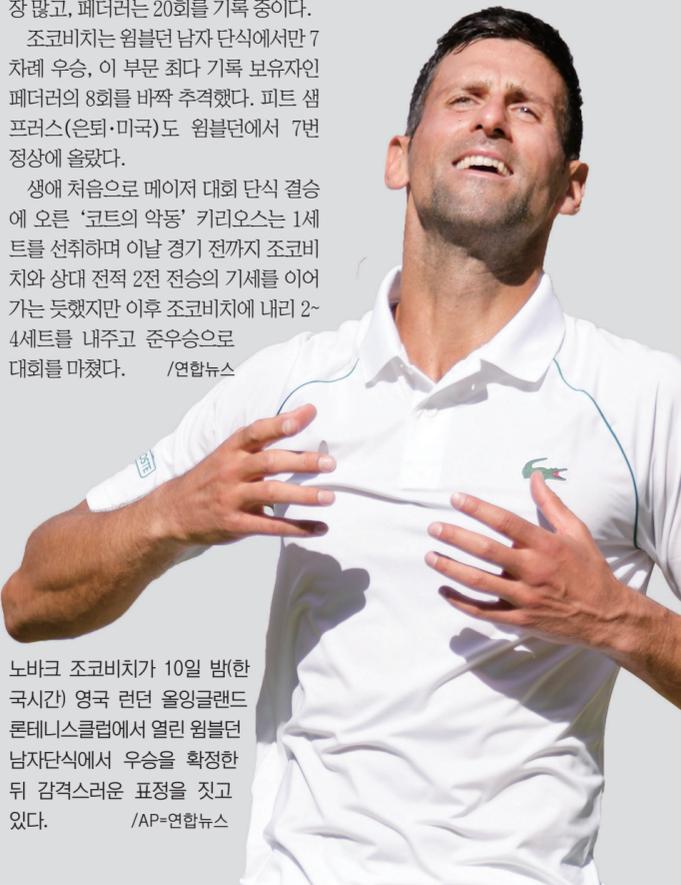
올해 Wimble던 4강에서 부상으로 기권한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이 22회로 가장 많고, 페더러는 20회를 기록 중이다.

조코비치는 Wimble던 남자 단식에서만 7차례 우승, 이 부문 최다 기록 보유자인 페더러의 8회를 바짝 추격했다. 피트 샘프러스(은퇴·미국)도 Wimble던에서 7번 정상에 올랐다.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오른 ‘코트의 악동’ 키리코스는 1세트를 선취하며 이날 경기 전까지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 2전 전승의 기세를 이어가는 듯했지만 이후 조코비치에 내리 2~4세트를 내주고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가 10일 밤(한국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 론테니스클럽에서 열린 Wimble던 남자단식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뒤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주형 스코틀랜드오픈 3위...첫 ‘톱10’

PGA 통산 개인 최고 성적

우승 쇼플리·준우승 기타야마

지난해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서 상금과 대상,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휩쓴 김주형(20)이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800만 달러)에서 단독 3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 르네상스클럽(파70·7,237야드)에서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가 공동 주관한 대회로 특히 다음

주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 개막을 앞두고 세계 주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아직 PGA 투어 회원이 아닌 김주형이 PGA 투어 대회 ‘톱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형은 지난해 3월 푸에르토리코오픈 공동 15위가 지금까지 PGA 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이번 시즌에는 5월 AT&T 바이어던 벨스 공동 17위, 6월 US오픈 23위 등을 기록했다.

김주형은 이번 대회 상금 55만2,000달러(약 7억1,000만원)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시즌 KPGA 코리아투어에서 김주형이 상금 1위를 차지하며 벌었던 액수(7억5,493만원)와 거의 비슷하다.

이 대회 첫날 공동 15위, 2라운드 13위, 3라운드 9위로 순위를 조금씩 올린 김주형은 이날 8번 홀(파4)에서 약 4.5m 버디 퍼트를 넣었고 16~17번 홀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는 등 타수를 줄였다. /연합뉴스

17번 홀(파3) 약 2.5m 버디로 공동 선두까지 오른 김주형은 마지막 18번 홀(파4) 보기로 끝내 우승 경쟁을 이어가지 못한 장면이 아쉬웠다.

그러나 김주형은 “내가 세계 1위 선수라면 실망했겠지만, 이번 대회 결과를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주형은 14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즈의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제150회 디오픈에 출전한다.

우승은 최종합계 7언더파 273타의 성적을 낸 잭터 쇼플리(미국)가 차지했다. 쇼플리는 6월 말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이어 최근 3주 사이에 2승을 수확했다.

4월 취리히 클래식까지 더하면 시즌 3승, 투어 통산으로는 7승을 거둔 쇼플리는 우승 상금 144만 달러, 한국 돈으로 18억7,000만원을 받았다.

커트 기타야마(미국)가 6언더파 274타를 기록, 쇼플리에 1타 뒤져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펜싱부가 최근 충북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남녀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대 제공

호남대 펜싱부 창단 후 첫 쾌거 종별대회 남녀 사브르단체 우승

여자 불링부 3개 종목 메달권

호남대학교 펜싱부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남녀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 여자 불링부도 3개 종목에서 메달권에 입상하며 선전을 이어갔다.

펜싱부는 지난 1~8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남대, 여대 사브르 단체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대는 윤성현(4년)·박정호·유수근(이상 2년)·주진현(1년)이 출전한 남대부 준결승에서 대진대, 결승에서는 동의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승주B(4년)·이승주A·최민지(이상 3년)·김유

민(2년)이 출전한 여대부도 준결승에서 동의대를, 결승에서는 한체대에 각각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밖에 여자 개인전에서도 김유민(2년)이 3위에 입상했다.

여자불링부는 4~10일 전북 익산 남부달 불링경기장에서 진행된 제36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불링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유여진-유수은(이상 4년)·박수빈(3년)·임정연·박설아·이하은(이상 2년)이 출전한 5인조전에서 2위, 이효진·최아영(이상 3년)조가 2인조전 3위, 유여진이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불링부의 경우 6개 종목(개인, 2인조, 3인조, 5인조, 개인종합, 마스터) 중 5개 종목에서 5위 이내 성적을 기록했다. /최진화 기자

KBO, 올스타전 ‘팬 페스트존’ 운영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이 열리는 서울 잠실구장 외부 제2주차장에 ‘팬 페스트존’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팬 페스트존은 플레이존과 마켓존, 스폰서존으로 구성되며 팬 퍼스트의 의미를 담아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플레이존에서는 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 중 퓨처스 올스타와 KBO 올스타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팬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베이스볼5’, 선수의 주루 속력에 맞춰 뛰는 ‘러닝 LED’, 구속을 측정할 수 있는 ‘도전 160km’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KBO는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누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베이스볼5 경기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 경기장을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스타전이 열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잠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마켓존에서는 2022 KBO 올스타 기념상품이 판매된다. 드림, 나눔 올스타 레트로 유니폼과 더불어 어센틱 모자, 기념구, 티셔츠, 배지 등 다양한 품목의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역대 올스타전 중 처음으로 10개 구단의 대표 먹거리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KBO 접수처에서는 팬 사인회 티켓 및 올스타전 이벤트 당첨자들의 경품이 배포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